

국가에 대항하는 가족: 세월호 연대의 감정동학과 루트 패러다임*

김명희**

- I. 들어가며: 거대한 유족사회와 국가에 대항하는 가족
- II. 유족의 상(喪)의 과정과 루트 패러다임(root paradigm)
- III. 세월호 연대의 감정동학: 루트 패러다임을 중심으로
 1. 억압되고 지연된 애도의 감정공동체:
오월어머니회와 4·16 가족협의회
 2. 원통과 깨달음의 감정동학: 유족과 유족을 잇는 세월호 연대
 3. 후회와 뉘우침의 감정동학: 세대와 세대를 잇는 세월호 연대
 4. 추모의 지역네트워크와 확대되는 공감장:
지역과 지역을 잇는 세월호 연대
- IV. 토론 및 전망: 대안적 수행집단과 친밀한 공공권의 가능성

국문요약

이 연구는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5·18과 4·16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소통하고 있는 세월호 연대의 감정동학을 유족의 상(喪)의 과정과 루트 패러다임(root paradigm)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특히 이 글은 세월호 연대의 작동방식에서 드러나는 세 가지 감정동학에 주목했다. 첫째, 5·18 유가족과 4·16 유가족의 상호응시

*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6S1A5A2A03927743). 날카로운 논평으로 글의 논지를 다듬는데 큰 도움을 주신 익명의 심사위원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 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 HK연구교수, 사회학.

과정에서 발현된 원통과 깨달음의 감정동학, 둘째, 세대와 세대를 동시대적으로 엮어 내고 서로를 참조하여 생성되고 있는 후회와 뉘우침의 감정동학, 셋째, 추모의 지역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며 확대되고 있는 공감장이다. 각각은 유가족과 시민들이 국가폭력에 얽힌 생애사적 고통을 뚫고 역사적 반성의 시간을 만들고 있는 새로운 사회연대의 가능성을 드러내 보여준다. 이 글은 그간 상대적으로 간과되어왔던 사회운동의 감정적 토대와 문화적 동학이라는 관점에서 그 가능성에 구체성을 더해보고자 하였다.

주제어: 세월호 연대, 유족의 상(喪)의 과정, 루트 페러다임, 감정동학, 역사적 반성.

I. 들어가며: 거대한 유족사회와 국가에 대항하는 가족

한국현대사에서 ‘죽음’이 지닌 사회적 함축은 실로 강렬하다. 해방 이후 한국전쟁과 분단, 개발독재와 국가폭력, 사회적 재난의 역사는 수많은 희생자들과 유가족을 양산했다. 대표적으로 한국전쟁 당시 남한 전체 인구 2000만 명 중 4-5%, 북한은 1000만 명 중 13-14%가 사망했다. 사망자의 직계가족만 해도 남한전체 인구의 20-25%, 북한은 50-60%이 달한다.¹⁾ 나아가 전후 현대사의 오랜 침묵을 깨고 1970년대 한국 민중운동의 서막을 열었던 전태일의 죽음에서, 권위주의 시대 발생한 수많은 의문사, 5·18 광주민주화운동, 그리고 최근 4·16 세월호 참사에 이르기까지, 한국현대사는 죽음을 통해 소통해왔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거대한 유족사회’에 비견할만하다.²⁾

추상수준을 낮춰 구체적인 역사적 국면들로 들어가 보면, 죽음을 통해 소통하는 한국현대사에서 ‘유가족’이 중요한 정치적 행위자였다는 점을 곧 알

1) 『국민일보』, 2016. 4.12.

2)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자살자 유가족의 문제도 만만치 않다. 통계청의 ‘2016년 사망원인통계’를 보면 그 해 자살자는 13,092명으로 집계되었다(통계청, 2016). 통상 한 사람의 자살자 배후에는 최소 5-10명의 자살 유가족이 있다고 상정되는데, 이에 따르면 2016년에만 자살유가족은 대략 6만 5천 명에서 13만 명으로 추산 가능하다.

수 있다.³⁾ 실제 아르헨티나 이행기 정의 과정을 견인했던 오월광장 어머니회는 물론 한국 과거청산 운동의 중요한 정치적 행위자였던 제주 4·3을 비롯한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유가족, 5·18 유가족, 그리고 2014년 4·16 세월호 참사 유가족의 사례는 정부와 미디어에 의해 표상된 ‘피해자로서의 유족’이라는 일면적 상에 의문을 제기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나는 ‘유가족’이라는 범주를 서구 근대화 경험에 기반한 확대가족·핵가족이라는 이분법적 도식으로 환원되지 않는, 또는 정상가족(the Family)의 이데올로기적 함축에 맞서 제안된 다양한 가족형태론(‘families’)으로도 좀처럼 포착되지 않는 한국 정치문화의 심층에 자리한 가족의 존재형태로 바라볼 것을 제안한 바 있다.⁴⁾

즉, 정치적 폭력 및 민주화 이행 과정에 연루된 유가족들의 행동동학은 기존의 사회질서를 재구조화할 정치적 잠재력을 지닌, ‘대항적 친밀권(counter intimate sphere)’, 혹은 ‘친밀한 공공권(intimate public sphere)’의 한 형태로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잃어버린 공공적 공간의 대상(代償) 공간으로서 친밀권의 생성 원리에 주목한 사이트에 따르면, 친밀권은 추상적인 타자가 아니라 구체적이고 간인격적(interpersonal)인 타자의 삶/생명에 대한 배려에서 형성된다. 이러한 친밀한 연대를 기반으로 성립하는 친밀권은 곧 공공권으로 기능할 수 있으며, 사실 현대 사회에서 새롭게 창출되는 공공권의 대부분은 친밀권이 전환되어 생겨났다. 이것이 가족에 기반하되 가족으로 환원되지 않는 사회적 것(the social)의 확장으로서 친밀한 공공권이 지닌 정치적 잠재력이다.⁵⁾ 이 개념은 국가와의 관계에서 형성된 유족회의 행위양식

-
- 3) 정치적 행위자(political agent)란 행위성을 발휘하여 세계를 만들고 변화시키는 과정에 개입하는 역사적 주체들을 의미한다. 정치적 행위성은 의식과 의도성을 전제하지만, 특정한 역사와 사회, 문화 속에 위치하여 그 사회의 담론, 사유양식, 감성들에 정박된 것이기도 하다. Aretxaga, Begonia, *Shattering Silence: Women, Nationalism and Political Subjectivity in Northern Ireland*,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7, pp. 8-9. 한국전쟁 민간인학살에 연루된 정치적 행위자로서 경상남북도피학살유족회에 대한 연구로는 이동진, 「국민과 비국민의 경계: 피학살유족회 사건을 중심으로」, 『라틴아메리카연구』 19(2), 한국사회사학회, 2014; Wright, Brendan, “Raising the Korean War Dead: Bereaved Family Associations and the Politics of 1960-1961 South Korea”, *The Asia-Pacific Journal* 41(2), 2015을 참고하라.
- 4) 김동춘·김명희 외, 『트라우마로 읽는 대한민국: 한국전쟁에서 쌍용차까지』, 역사비평사, 2014, 11쪽.
- 5) 사이트 준이치, 『민주적 공공성: 하버마스과 아렌트를 넘어서』, 윤대석·류수연·윤미란

에 대한 전향적 통찰을 제공한다. 이 같은 견지에서 정치적 유가족들의 행위 양식은 분단 현대사의 굴곡을 재현하는 동시에 기존의 사회질서를 ‘비트는’ 사회형성의 메커니즘과 긴밀히 맞닿아있다.

이 글이 제목으로 상정한 ‘국가에 대항하는 가족’은 이러한 쟁점을 환기시키는데 제한적이거나 유용성이 있으리라 생각한다. 다소 맥락은 다르지만, 이 용어는 프랑스 인류학자 피에르 클라스트르(P. Clastres)의 논저 ‘국가에 대항하는 사회’에서 차용한 것이다.⁶⁾ 그가 국가 이전 사회의 정치원리에서 야만의 국가에 대항하는 사회의 원형을 추출해냈다면, 이 글의 맥락에서 이 개념은 거꾸로 문명화된 국가에 의해 야만상태로 내몰린 사회적인 것의 작동방식에서 대안적인 사회형성의 원리를 추출하는데 정향된다. 다시 말해 오랜 기간 국가가 사회계약의 수호자라기보다 폭력 - 뒤르케임이 말한 ‘강제된 분업’ - 의 주체일 때, 사회가 어떻게 자신을 유지·변형해 가는데 대한 해명은 한국 특유의 저항적 시민사회를 설명할 수 있는 단서가 된다. 같은 맥락에서 전(前)-계약적 연대, 즉 신념과 감정에 기초한 공동체가 사회를 결속시키는 분업의 토대라는 그의 통찰은 여전히 유효하다. 연대를 사회학 고유의 과제로 상징했던 뒤르케임에게 근대 사회로의 이행 과정은 집합의식(consience collective)의 변동 과정으로 설명된다. 집합의식은 “동일한 사회의 평균적 구성원들에게 공통적 믿음과 감정의 총체”이자 “사회적 정신적 유형으로서 그 나름대로의 고유한 특징과 생존 조건 및 발전 양식을 가지고 있다.”⁷⁾ 그는 자신의 시대를 위기의 시대, 집합적 멜랑콜리, 아노미의 시대로 규정하였고, 지적 아노미를 청산하고 새로운 제도의 근간이 되는 이상을 창

윤김, 서울: 이음, 2009, 104쪽. 사이토의 논의를 재구성해 필자가 개념화한 친밀한 공공권(intimate public sphere)은 친밀한 영역에 기반한 공공권의 정치적 잠재력을 지칭한다. 김명희, 「동아시아 분단체제의 재구성 장치로서 친밀적 공공권(親密的 公共圈)의 가능성」, 『민주주의와 인권』 16(2),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2016, 366-369쪽; Kim, Myung-Hee, “The Possibility of Intimate Public Sphere: Political Familism of Divided Koreans”, S/N *Korea Humanities* 2(1), 2016.

- 6) 중남미에서 인디언 사회를 연구했던 클라스트는 국가 없는 사회인 원시사회의 경험에 기반해 국가가 문명이 아니라 야만적 상태라는 결론을 내렸다. “역사 없는 사람들의 역사는 국가에 대항하여 싸우는 투쟁의 역사”라는 것이다. 피에르 클라스트, 『국가에 대항하는 사회: 정치인류학 논고』, 홍성흡 옮김, 이학사, 2005. 270쪽.
- 7) 에밀 뒤르케임, 『사회분업론』, 민문홍 옮김, 아카넷, 2012, 128쪽.

출하는 지적 열광을 형성하는 것을 자신의 시대의 과제로 삼았다. 그리고 이 집합적 멜랑콜리로부터 집합적 열광으로 이행하는 과정은 역사적 반성이 매개한다.⁸⁾ 하지만 이러한 역사적 반성을 매개하는 감정기제와 동인에 대한 탐구는 아직 미개척의 영역으로 남아있다. 이에 대한 탐구는 - 아담 스미스를 원용한 사이트의 표현을 끌어오자면 - ‘겉이 촌촌한 정치감정론’의 개입을 요청하고 있다고 보인다.⁹⁾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이 글은 시론적이나마, 세월호 참사를 매개로 역사적 반성이 일어나고 있는 세월호 연대¹⁰⁾의 국면을 1980년 5·18 민주화운동 이후 형성된 ‘오월 어머니집(오월어머니회)’과 2014년 4·16 참사 이후 만들어진 ‘4·16 가족협의회’의 ‘상호응시’ 과정과 공감 현상에 착목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직간접적인 국가폭력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두 유족회는 스스로 주체가 되어 시민사회와 연대함으로써 진실 규명의 동력을 형성해왔다는 점, 공론장의 역할을 해야 할 언론이 공적 기능을 상실했을 때 사건의 진실을 재현하는 공론장 역할을 대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보인다.¹¹⁾ 무엇보다 두 사례는 유족회라는 감정공동체¹²⁾를 중심으로 촉발된 강력한 행동주의(activism)를 보여주는 유형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글은 각각을 독립된 사건으로 다루기보다 두 집단을 비가시적인 형태로 소통시키고 있는 감정의 자장과 그 동학(dynamics)을 탐사하는데 보다 관심을 갖는다. 이 같은 관심과 분석대상은 최근 제안된 ‘공감장(共感場)’ 개념과 호환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개념은 모든 공감이 사회적이고 역사적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이로부터 공통의 역사적 기억에 기초한 공감 현상들이 갖는 정치성과 문화성의 메커니즘을 분석하고자 한다. 공감장은 상이한 공감들이 마주치고 투쟁하는 관계의 망으로서 공감이 형성되고 생성되는 사회적 조건을 밝히려는 일종의 인식단위 또는 분석단위를 뜻한다.¹³⁾ 같

8) 유사한 맥락에서 과정 속에 놓여있는 사회적 체험의 구조로서 ‘감정구조’에 착목한 윌리엄스는 한 사회의 변화는 감정구조가 변화할 때 비로소 성취되는 것이라고 말한다. 레이먼드 윌리엄스, 『문학과 문화이론』, 박만준 옮김, 서울: 경문사, 2003, 190-191쪽.

9) 사이트, 앞의 책, 112쪽.

10) 세월호 연대는 4·16세월호 참사의 극복과 해결 과정에서 세월호 유가족과 생존자, 목격자를 비롯한 광범위한 시민참여로 전개된 4·16운동의 연대 양식을 지칭한다.

11) 김명희·김양배 편, 『세월호 이후의 사회과학』, 그린비, 2016, 7쪽.

12) 감정공동체는 감정에 기반하고 감정적 유대를 결속의 주된 원리로 삼는 공동체를 뜻한다.

은 맥락에서 두 유가족의 강력한 행동주의와 공감을 가능케 한 사회적 조건 및 감정적 동인에 대한 이 글의 해명은 그간 상대적으로 간과되어왔던 한국 사회운동의 감정적 토대와 문화적 동학을 해명하는데 있어서도 유의미한 시사점을 줄 것이라 기대한다.

이 글의 서술은 ‘오월어머니회’ 및 5·18 유가족의 경험을 다룬 선행연구¹⁴⁾와 4·16 유가족의 경험에 대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2016년 진행한 「참사 피해자 중 단원고 학생 희생자 가족 대상 실태조사」 자료집, ‘4·16 기억저장소’가 축적한 구술증언집, 그리고 ‘4·16세월호참사작가기록단’이 유가족 및 형제자매들의 목소리를 담아 출간한 『금요일엔 돌아오렴: 240일간의 세월호 유가족 육성기록』(2015), 『다시 봄이 올거예요: 세월호 생존학생과 형제자매 이야기』(2016)에 기반을 두고 있다.¹⁵⁾ 각 텍스트는 현상학적 기술과 비개입적 내러티브의 보존 및 기록에 주안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에 대한 재구조화와 재귀적 연구의 공간을 열어놓는다.

이상의 자료에 기초해 이 글은 세월호 연대의 작동방식에서 드러나는 세 유형에 감정동학에 주목했다. 첫째, 5·18 유가족과 4·16 유가족의 상호응시 과정에서 발현된 원통과 깨달음의 감정동학이며, 둘째, 세대와 세대를 동시대적으로 엮어내고 서로를 참조하여 새롭게 생성되고 있는 후회와 뉘우침의 감정동학이다. 셋째, 추모의 지역네트워크를 통해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며 확대되고 있는 공감장이다. 이러한 상호감정의 발생동학과 유형적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 ‘유족의 상(喪)의 과정’ 속에서 작동하는 ‘루트 패러다임’에 대한 미나베 유코의 통찰에서 논의를 시작해보자.

-
- 13) 전남대 감성인문학연구단이 최근 제안한 공감장(共感場)은 감성의 사회적 성격을 해명하면서 한 사회의 변화와 발전을 담보하는 인간의 감성적 동인을 분석·비판하기 위해 고안된 개념이다. 전남대학교 감성인문학연구단, 『공감장이란 무엇인가: 감성인문학 서론』, 길, 2017, 15-21, 51쪽.
- 14) 김희숙, 「여성의 사회적 저항 경험에 관한 여성주의적 접근: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어머니 활동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노영숙, 「오월어머니집 형성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 15) 이 외에도 2014~2016년 유가족 간담회를 통한 2편의 녹취록, 진도평목항과 목포신항에서 얻은 참여관찰 결과와 사진 기록, 인터넷 매체에서 유통되는 세월호 관련 사진자료 및 신문기사를 참고·활용하였다.

II. 유족의 상(喪)의 과정과 루트 패러다임(root paradigm)

일본의 항공기 대형참사 유족의 삶을 연구한 정신의학자 노다 마사아키는 가족 상실을 경험한 유족들은 일정한 통과의례를 수반한 상(喪)의 과정을 수행한다고 말한다. 사람은 사별에 직면해 기존의 사회관으로부터 분리되고, 위기로 가득찬 과도기를 통과하여, 새로운 사회관으로의 통합을 찾는다. 그것은 원래의 위치로는 결코 돌아갈 수 없는 위험한 여행이다. 이 여정을 ‘유지(遺志)의 사회화’ 과정이라 말할 수 있는데, 이는 죽은 사람이 남긴 ‘유지(遺志)’의 실체를 상징하고 계승하는 사회적 활동을 통해 고인의 생명을 영속시키려는 심리기제에 기인한다. 다시 말해 유족은 유지(遺志)의 사회화를 통해서 실은 자기 자신의 재(再)사회화, 나아가 - 사랑하는 사람의 상실이라는 가혹한 문을 통과하고 난 후 - 사회관계의 재구축을 실행하고 있다는 것이다.¹⁶⁾ 그리고 그 방법은 매우 창조적이고 다양할 수 있다.

한국 민주화 운동의 역사적 맥락에 이 논의를 접목한 미나베 유코는 『열사의 탄생: 한국민중운동에서의 한(恨)의 역학』(2015)에서 1970년 전태일의 분신과 그 이후 만들어진 - 1986년 8월 12월 이소선을 초대 회장으로 한 - ‘전국민주화운동유족협의회’의 작동방식을 섬세하게 고찰한 바 있다. 유족들은 크게 비애의 심리 과정, 문화로서의 의례 과정, 그리고 가치의식의 전복을 동반하는 사회 과정을 거쳐 죽은 자와 산 자의 연대라는 너른 들판에서 재(再)사회화 과정을 통과한다. 예컨대 통과의례의 첫 단계는 장례다.¹⁷⁾ 장례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유족과 그 이외의 사람들이 비애를 공동으로 표출하는 연대감에서 비탄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확인·강화하는 점에 있다. 사회적 차원에서 ‘비애의 작업’이 수행되는 것이다. 그 때문에 장례라는 분리의례의 의미를 지닌 문화적 장치는 유족과 사회의 상호관계를 반영하는 거울이라고 할 수 있다.¹⁸⁾

16) 노다 마사아키, 『떠나보내는 길 위에서: 대형 참사 유족의 슬픔에 대한 기록』, 서혜영 옮김, 팬타그램, 2015, 254-255쪽.

17) 장례는 산 자와 죽은 자를 분리해 내는 ‘분리의례’다. 산 자는 장례라는 분리의례를 통해 전이기에 들어가며, 사회에의 재통합 의례를 통해 그곳에서 나오게 된다. 반 겐넵, 『통과의례: 태어나면서부터 죽은 후까지』, 전경수 옮김, 을유문화사, 1995. 198-199쪽.

18) 미나베 유코, 『열사의 탄생: 한국민중운동에서의 한의 역학』, 김경남 옮김, 민속원, 2015,

상(喪)의 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그녀는 “한국 사회에 특유한 루트 패러다임(root paradigm)”¹⁹⁾을 추출해낸다. 루트 패러다임은 죽은 자를 중심으로 유족과 유족, 유족과 사회 사이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집단으로의 이행 혹은 재통합 과정을 가리킨다. 이 작동방식은 터너가 사회극의 전개 과정에서 발현되는 사회적 반구조(anti-structure)라 말한 것과 유사하다.²⁰⁾ 여기서 사회극(social drama)이란 어떤 사회 공동체 내에 중요한 계기를 형성하는 극적인 사건을 중심으로 ‘구조(structure)’와 ‘반구조(anti-structure)’ 사이에서 전개되는 동적인 사회과정의 단위를 말한다. 구조와의 관계에서 볼 때 반구조(anti-structure)는 여러 가지 다양한 대체 모델들의 생성을 지시한다. 예컨대 유족과 사회는 ‘민주국민장’이라는 의례 시스템을 통해 일련의 커뮤니티스(communitas)²¹⁾를 형성했다. 광주 망월동이나 모란공원 등에 묻힌 ‘열사’들에게 매년 추모의례를 지내며, 숭배가 이루어진다. ‘추모’의 장에서 반복되는

213-216쪽.

- 19) 루트 패러다임(root paradigm)은 빅터 터너(V. Turner) 식으로 말하면 문화적 유전코드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를 한국 민주화운동에 접목시킨 미나베는 1970년 이후 전태일이라는 ‘열사’의 형성을 통해 가동된 루트 패러다임이 선명하고 자각적인 운동으로 이동하게 된 기원을 ‘1980년 광주’에서 찾는다. 그리고 ‘1986년’을 거치면서 이 운동에 이념화된 ‘의(義)’라는 가치가 부여되었다고 본다. 위의 책, 29, 308쪽.
- 20) 사회극의 전개과정에서 반구조에서 창출된 대체모델은 정치적인 조절 도구로 이용될 수도 있고, 근본적인 변화 방향의 주류를 형성하는 사회·정치적 역할행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빅터 터너, 『제외에서 연극으로: 놀이의 인간적 진지성』, 김의두·이기우 옮김, 민속원, 2014, 16, 56쪽.
- 21) 터너에 따르면 사회관계에는 2가지 양식이 있는데 하나는 정치적·법적·경제적인 지위가 구조화되고 분화된 계급적인 체계의 양식이고, 다른 하나는 평등한 개인으로 구성된 미분화된 중간집단의 양식이다. 후자를 터너는 커뮤니티스(communitas)라 부르며, 사회생활을 구조와 커뮤니티스를 연속적으로 경험하는 변증법적 과정으로 이해한다. 달리 말해 커뮤니티스란 “역사적·특질적·구체적 개인들 사이의 어떤 매개되지 않은 관계로서 서로를 바라보고 이해하고 상대방을 향해서 행동하는 그런 본질적인 방법”을 말한다. 이를테면, 인간적 아이덴티티의 만남인 ‘자발적 커뮤니티스’의 양식 속에서 서로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개인들은 총체적으로 어떤 단일한 동시 발생적·유동적 사건 속으로 흡수된다. 커뮤니티스는 ‘호른다’. 이 흐름 속에서 함께 ‘존재하는 것’, 다시 말해 그 상황 속에서 작동하고 있는 것이 말이 ‘되는 것’이다. 이것을 ‘자발적 커뮤니티스’라 말할 수 있다면, ‘규범적 커뮤니티스’는 여러 가지 자발적 커뮤니티스를 다소간 지속적인 토대 위에서 증진시키고 유지시키려고 시도하는 일종의 하위문화 혹은 하위집단을 말한다. 이 또한 하나의 ‘지속적인 사회체계’라고 볼 수 있다. 위의 책, 72-81쪽.

의례 과정을 목격한 사람들은 여러 대항 담론과 가치의식을 자신의 내부에 각인한다. 대학생은 운동 동아리에 입회하여 농촌 활동이나 공장 활동, 혹은 야학 교사 등의 봉사 활동을 통해 민중을 학습하고 세미나, 정기집회에 참여하면서 운동 의례와 문화를 내면화한다. 또한 이 같은 심리·문화·사회 과정을 반복하여 ‘전국민주화운동유족협의회’는 의제(擬制) 친족집단으로 결속되었다.²²⁾ 미나베가 루트 패러다임이라 지칭한 이 대항적 반구조의 작동방식은 죽은 자와 유족, 그리고 유족과 사회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사회적 연대의 발현 양식을, 나아가 한국 저항적 시민사회의 내밀한 발생동학을 예리하게 포착하고 있다. 이 개념은 사회적 죽음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중심으로 재생산·변형되고 있는 과정적 구조를 포착하기에 유용하다고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메커니즘은 4·16 이후 세월호 연대의 작동방식이 내보인 특유의 루트 패러다임을 이해하는데도 유망하다.

부연하자면, 정치적 유가족을 중심으로 작동하는 루트 패러다임을 이해하는데 감정은 빼놓을 수 없는 매개적 동인이다. 최근 문화적 전환을 이끈 몇몇 학자들은 정치에서 감정이 갖는 중요성을 인지해왔다. 이들에 따르면, 처음으로 네트워크를 규정짓는데 일조하는 것이 바로 감정적 유대다. 『열정적 정치』의 편자 중 한 사람인 사회학자 제스퍼(J. M. Jasper)는 사회운동 내부에서 발생하는 두 종류의 감정을 구별한다. 상호감정(reciprocal emotion)은 참가자들 사이에서 서로에 대해 지속되는 감정과 관련된다. 이는 친밀함, 우정, 사랑, 연대, 충성 그리고 그것들이 발생시키는 보다 구체적인 감정의 긴밀한 정서적 유대를 일컫는다. 또한 공유된 감정(shared emotion)이라 부르는 것은 외부자들에 대해 화 또는 정부정책에 대한 분노를 키운다. 상호감정과 공유된 감정은 비록 구분되지만 서로를 강화하면서 운동문화를 구축한다.²³⁾

이러한 감정적 유대의 구축 과정에서 또 하나 중요한 지위를 점하는 문화적 동학이 바로 ‘의례’이다. 의례 행위는 형식을 통해 친밀성을 전달한다. 이 속에서 친밀성과 정체성은 서로 경계를 접하고 있다. 반복되는 의례 참여 경험은 연대감 - “우리 모두는 함께 이곳에 있고, 우리는 무언가를 공유하고

22) 미나베 유코, 앞의 책, 215, 294쪽. 이는 앞서 이 글의 서두에서 말한 대항적 친밀권 혹은 친밀한 공공권의 발생동학과 공명한다.

23) 굿윈·제스퍼·플레타(편), 앞의 책, 40-44쪽.

있음에 틀림없다” - 을 산출한다. 그리고 마침내 그것은 집합기억 - “우리 모두 함께 그곳에 있었다” - 을 산출한다. 즉, 감정은 정치적 의례가 의존하는 중심축이며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낼 능력을 지닌 정치적 학습의 수단이다. 이 점에서 감정은 무합리적이지만, 비합리적이지는 않다. 감정은 자신과 타자, 주체와 객체, 존재론적인 것과 인식론적인 것을 융합시킨다. 즉 정체성과 정치적 관행의 토대로 감정이 자리하며, 감정은 하나의 대안적인 정치논리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²⁴⁾

이렇게 볼 때 인지와 감정은 제로섬 관계에 있지 않다. 통상 감정과 인지는 둘 중 하나만이 행동을 틀지우는 것처럼 대치되지만 감정은 인지와 서로 묶여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²⁵⁾ 즉, 감정은 분별없는 정서적 격앙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개인이 지닌 중요한 가치와 목적에 맞게 고울된 지적 반응이다. 모든 감정은 세상을 구성하는 항목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며, 다른 사람에 대한 평가를 유발한다.²⁶⁾ 세월호 참사의 사회과정에서 발현된 독특한 정치감정도 이 같은 가치의식을 내포한 지적 구성물로 이해될 수 있다.

Ⅲ. 세월호 연대의 감정동학²⁷⁾: 루트 패러다임을 중심으로

이제까지의 논의를 분석의 자원으로 삼아 ‘오월어머니회’와 ‘4·16 가족협의회’를 교통하는 감정동학을 살펴보기로 하자. 두 사례는 유족회를 중심으로 한 사회연대의 루트패러다임과 그 경향성을 포착하기 위한 유형적 사례

24) 위의 책, 144-145쪽.

25) 위의 책, 33쪽.

26) 마사 너스바움, 『혐오와 수치심』, 조계원 옮김, 민음사, 2015, 62-77쪽.

27) 감정동학(emotional dynamics)은 감정이 사회운동을 어떻게 이끌고 변화시키는지를 포착하기 위한 분석적 범주다. 이 개념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감정의 속성을 상황적·관계적 논리로 파악하면서 행위의 양가성이나 맥락성을 설명할 수 있게 돕는다. 박형신·정수남, 앞의 책, 242쪽. 먹거리 불안·파동의 발생 메커니즘과 감정동학에 대해서는 박형신(2010), 고도경쟁 사회에서 생산되는 공포의 발생 메커니즘과 노동자들의 감정동학에 대해서는 박형신·정수남(2015), 5·18 이행기 정의에 연루된 다층적 행위자들의 부끄러움의 감정동학에 대해서는 김명희(2016)를 참고하라.

로서 의미를 갖는다. 국가폭력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두 감정공동체는 첫째, 진실의 은폐로 진정한 애도가 방해받은 공동체이며, 둘째, 따라서 - 다른 재난 사례와 다소 달리 - 정부와 언론의 ‘거짓말’에 맞서 처음부터 진실규명이라는 가치(의식)를 정체성의 중요한 일부로 삼은 공동체라는 점, 셋째, 처음에는 자조모임의 성격에서 출발한 공동체가 점차 시민사회와의 연대를 구축하면서 기존의 사회관계를 재구조화하는 것을 궁극적 목표로 삼는 직접행동과 사회연대의 거점이 되고 있다는 점, 넷째, 사회운동을 통해 애도와 치유를 달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보인다. 이장의 주된 관심은 두 정치적 유가족의 상호소통 과정에서 발현된 감정동학이 4·16 운동이 촉발한 세월호 연대 특유의 루트 패러다임과 대안적인 정치논리의 핵심적 측면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이를 논하기 위해 우선 각 감정공동체의 형성과정을 간략히 짚어볼 필요가 있다.

1. 억압되고 지연된 애도의 감정공동체: 오월어머니회와 4·16 가족협의회

1) 오월어머니집(오월어머니회)의 형성과 활동

2004년 4월 개관한 광주광역시 양림동 소재 ‘오월어머니집(오월어머니회)’의 전신은 19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 이후 발족한 ‘5·18구속자가족회’다. 1980년 5월 27일 정부군에 의해 수많은 사상자와 구속자가 발생하고, 5·18에 관한 재판이 시작되면서 맨 처음 ‘5·18구속자가족회’가 만들어졌다. 그 이후 5·18유족회, 5·18부상자회 등 여러 단체가 결성되어 5·18피해자 규명, 5·18 진실규명, 관련자 명예회복, 책임자 처벌 등의 활동을 전개해나갔다. 그 중 5·18구속자석방과 5·18진실규명운동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5·18구속자가족회’는 노영숙에 따르면 일련의 ①태동기(1980-1983), ②저항기(1983-2000), ③성장기(2000-현재)를 거쳐 2000년 오월여성회(현 ‘오월어머니회’)로 거듭나게 된다.²⁸⁾

28) 오월어머니집 구성원의 대다수는 5월 항쟁에서 사망과 부상 또는 구속된 피해자의 가족들이며 일부는 본인이 직접 5월 항쟁에 참여한 여성들로 구성되어 있다. ① 태동기에 해당하는 5·18구속자가족회는 재판에 대한 공동 대책을 모색하면서 1980년 8월 결

특히 광주항쟁 20주년이 되는 2000년 5월 ‘오월여성회’로의 개편은 성장기(2000-현재)로의 전환을 나타낸다. 당시 ‘5·18구속자가족회’를 이끌었던 안성례 전회장을 비롯한 주요 멤버들은 5·18의 진실을 바르게 알리고 정신을 계승하는데 5·18을 직접 경험한 여성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함께하고 ‘오월여성회’를 창설하였다. ‘오월여성회’는 매월 모임을 갖고 회원들 간의 교류를 다지며 치친 심신을 치유하기 시작했다. 또 ‘오월여성회’ 가족들은 자신들의 경험과 이야기를 풀어 책을 만들어 5·18의 진실을 알리는 활동을 전개했다.

2006년 11월 개소한 ‘오월어머니집’은 광주 운동권의 젊은이들이 작은 한옥 한 채를 임대하여 -마땅히 모일 곳이 없었던- 오월여성회에 기부하면서 시작되었다. 이와 함께 ‘오월여성회’를 ‘오월어머니회’라 개명하고 광주광역시에 사단법인 등록을 하였다. 상주할 공간을 마련한 오월어머니집(오월어머니회) 회원들은 5월 정신 계승을 위한 교육사업, 오월어머니상 시상사업, 민족화해를 위한 국내외의 운동 단체들과의 교류사업, 마음에 깊은 상처와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회원들의 심신을 치유하는 어머니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구축하기 시작했다. 이 같은 오월어머니집 프로그램을 통해 오월어머니들의 삶도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가족을 잃은 상실감이 너무 큰 상처로 남아 외로운 노년을 보내야했던 어머니들이 오월어머니집에 모여 서로 위로하며 힘을 얻고 생기를 되찾아 점차 삶에 애착을 찾게 된 것이다. 오월어머니집은 인권NGO로 출발하였으나 점차 교육 및 재활센터로서의 복합적인 기능도 보유한 다목적 인권센터로 거듭나게 되었다.²⁹⁾

흥미로운 점은 가족협의회가 광주의 진실을 알리는 수행집단³⁰⁾이자 치유

성됐다. 당시 ‘5·18구속자가족회’는 여러 종교단체의 지원을 통해 유족들과 부상자들을 찾아가 피해의 규모 및 가족들의 사회경제적 현황을 파악하였다. ② 이후 ‘5·18구속자가족회’는 1982년 12월 5·18관련 구속자들이 모두 석방된 후 활동 범위를 확대하고자 1983년 3월 “민주화운동구속자가족협의회(민가협)”로 명칭을 바꾸어 재결집하였다. 점차 지역을 초월하여 전국단위의 양심수 지원활동을 전개하던 민가협은 1985년 서울의 민주화운동실천구속자가족협의회(민가협)와 연계하여 활동 범위를 전국 차원으로 확대하였다. ③ 그리고 오월여성회가 창립되자 과거 ‘5·18구속자가족회’로부터 이어져왔던 ‘광주민가협’ 회원들은 자연스럽게 ‘오월여성회’ 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을 이어나가게 되었다. 노영숙, 앞의 논문, 2015, 44-45쪽.

29) 위의 논문, 29-40쪽

의 공동체로서 기능하는 면모 뿐 아니라, 오월어머니집의 개소 이후 국내 및 국제인권교류의 장이자 아시아 인권레짐의 허브로서 급격히 성장한 과정이다. 노영숙에 따르면 해가 지나면서 오월어머니집은 광주의 명소로 떠올랐고, 회원과 내방객의 수도 비약적으로 상승했다. 물론 여기엔 두 가지 중요한 외부환경의 변화가 있었다. 2011년 광주민주화운동이 세계기록문화유산으로 유네스코에 등재된 것이 그 하나라면, 다른 하나는 노무현 정부의 지역 혁신전략에 의해 광주를 아시아문화 중심도시로 건설하는 대단위 국책사업이 진행된 것이다. 이와 함께 오월어머니집의 역사적 전개와 활동도 한국을 넘어 세계인의 문화유산으로 자리매김 되고 있다.³¹⁾

그 활동영역을 간략히 살펴보면, 크게 ①인권교육을 통한 광주정신의 계승 ②트라우마 치유와 재활센터 ③여성인권 국제교류로 분류될 수 있다. 특히 주목을 요하는 지점은 이 같은 활동을 매개로 오월어머니집이 민주화 이행 과정에서 형성된 국내 및 국제 유가족 인권단체와 서로의 아픔을 소통하고 공감하는 일종의 ‘규범적 커뮤니티스’³²⁾로 확장되고 있는 국면이다.

예컨대 오월어머니집은 한국전쟁 이후 피해유족 및 부마사태/민주화운동 유가족, 아르헨티나 오월광장어머니회 및 이란-하바란의 어머니들,³³⁾ 재독

30) 수행 집단(carrier group)은 외상적 사건을 청중 입장에 있는 공중에게 전달하는 발화자를 뜻한다.

31) 많은 논란이 있지만, 오월어머니집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강력한 지방정부-NGO의 파트너십은 지역발전과정에 대한 지방정부의 정당성과 책임성을 크게 신장시킬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이다. 특히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건설에서 아시아 인권현장의 구축은 오월어머니집과의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위의 논문, 44-45쪽.

32) ‘규범적 커뮤니티스’에 대해서는 주석 21번을 참고하라.

33) 아르헨티나 ‘오월광장어머니회’는 1976-183년까지 진행된 아르헨티나 군부의 ‘추악한 전쟁’으로 약 9,000명의 실종자가 발생한 것에 대한 대응으로 1979년 8월 22일 발족하였다. 군부의 강권탄압은 1983년 12월 10일 민선정부가 들어선 뒤 <실종자 진상조사 국가위원회>(CONADEP)의 활동과 인권재판을 통해서 공식 청산의 대상이 되었으나 완전하게 과거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지금까지 ‘오월광장어머니회’는 진상파악과 책임자 처벌을 주장하고 있다. ‘오월광장어머니회’ 활동의 주요 특징은 무엇보다 비폭력 직접행동을 통해 대안적인 저항운동을 지향한 점이다. 박구병, 『추악한 전쟁의 상흔: 실종자 문제와 아르헨티나 <오월광장 어머니회>의 투쟁』, 『라틴아메리카연구』 19(2), 한국라틴아메리카학회, 2006, 77쪽. 이 역시 다른 사회적 문제를 폭넓게 제기하는 인권NGO로 성장하고 있다. 유사한 유형적 사례로 이란 ‘하바란의 어머니들(Mother of Khavaran)’ 등에 대해선 노영숙, 앞의 논문, 51-55쪽을 참고하라.

한인교회 및 교포단체, 미안마 88민주어머니들과 교류를 활성화하는 허브단체로 기능하면서 아시아 인권레짐의 일부로 성장하게 되었다.³⁴⁾ 다음 절에서 살펴보겠지만, 세월호 유가족의 고통에 대한 오월어머니회의 지원활동과 공감의 발화 또한 이러한 토대에서 나온 것이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하자면, 오월어머니회의 역사과정은 4·16 가족협의회와의 발전과정에서 일정부분 재현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고 보인다.

〈자료1〉 광주 양림동 오월어머니집



2006년 5월 <오월 어머니집 설립 취지문>에는 “이 집은 1980년 5월 (전, 후) 대한민국의 민주화 과정에서 억울하게 희생당한 본인과 그 가족(특히 온갖 고생을 마다 않고 투쟁해 오신 어머니들)을 위로하고 노후의 건강한 삶을 위한 쉼터를 제공한다”고 쓰고 있다(노영숙, 2015: 41).

2) 4·16 가족협의회와의 형성과 활동

많은 이들이 지적하듯, 처음에 4·16 유가족은 정치적 이슈에는 거의 관심이 없는 보통 시민에 지나지 않았다. 이들이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부르짖으며 적극적으로 사회적 행동을 하는 깨어 있는 시민이자 결사체로 나서게 된 배경에는, 정부와 언론의 ‘거짓말’이 있었다.³⁵⁾ 유가족은 참사 직후

34) 위의 논문, 46-59쪽.

35) 사건 발생 3일 후인 4월 18일 학부모 명의로 발표된 <대국민 호소문>은 학부모들의 간절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구조 활동이 지지부진한 데다 재난본부에서 대규모 구조 활동이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했다는 것을 지적한다. 김석균 해양경찰청 청장이 박 전대통령이 앉아있는 자리에서 수백 명의 잠수부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는 내용을 포함한 구조 현황을 보고하자, 진도 체육관의 가족들은 청장이 보고를 끝마치기도 전에 “거짓말이야!”를 비롯해 야유를 퍼붓기 시작했다(『연합뉴스』, 2014.4.17). 약 열흘 뒤인 4월 29일 세월호 유가족은 유가족대표위원회 명의로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 형식은 기자회견문이고 제목도 없어 정식 성명서 모양새도 아니었지만 상당한

부터 구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 5일 후 정부당국에 대한 구조작업을 대통령에게 직접 요구하기 위해 팽목항에서 청와대로 행진한 순간 냉엄한 한국정치의 현실에 직면했다. 경찰은 삼엄한 경비를 할 뿐 아니라 유가족의 행진을 방해하고 심지어 강제로 돌려보내기가까지 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정부는 점차 세월호 유가족을 감시할 대상이나 불온한 세력처럼 대하기 시작했다.

그런 분위기에서 유가족은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 활동의 목표와 방향성 및 방법을 설정하고 다양한 유형의 호소문과 성명서 발표, 서명운동, 촛불시위, 가두시위, 밤샘농성, 장거리 행진, 북 콘서트, 장기 집단단식, 입법청원, 법적 소송 등 동원할 수 있는 대부분의 수단을 통해 진실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이라는 목표를 위해 ‘행동’했다. 시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홈페이지를 개설하거나 생생함을 더하기 위해 인터넷 TV 방송국을 개설하여 활동 내용을 동영상으로 전달하는 등 진실규명 활동을 활발히 펼쳤다. 다시 말해 언론의 진실규명 방해와 왜곡 보도에 맞서 유가족 스스로가 사건의 진실을 직접 규명하고³⁶⁾ 청중에게 전달하는 수행집단으로 변모한 것이다.

무엇보다 세월호 유가족의 조직화 과정에서 두드러지는 특징은 진실규명 등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회집단들과 연대하고 활동을 조직했다는 점이다. 이들 조직은 ①유가족을 중심으로 한 모임 ②사회단체들과의 연대 모임 ③사회단체는 물론 시민들의 직접 가입을 지향한 포괄적 형태의 상설모임이라는 세 가지 형태로 분류될 수 있다.

① 사건 직후인 2014년 5월 6일 ‘세월호 참사 희생자·생존자·실종자 가족 대책위원회’(약칭 ‘세월호가족대책위’)가 공식 발표했다. 이후 ‘세월호가족대책위’는 조직을 정비하여 2014년 9월 21일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약칭 ‘4·16가족협의회’)로 공식 출범했다.³⁷⁾ 이런 유가족의 조직적·의식적 변화에는 정부에 대한 불신과 함께 대통령에 대한 감상적 기대의 포기, 그리고 ‘거짓말’에 대한 ‘분노’가

의식 변화를 내보였다. 김기석, 앞의 책, 256쪽.

36) 세월호 유가족의 공식 활동은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진실규명 활동에 직접 나서는 것부터 시작되었다. 그들은 없어진 VTS 항적을 직접 복원했고 뒤늦게나마 수거된 가족들의 핸드폰 등에 담긴 영상을 조직적으로 복원했다. 위의 책, 261쪽.

37) 4·16가족협의회 홈페이지 <http://416family.org>.

있었다. ‘분노’는 가치의식의 전복과 감정적 유대를 매개하는 중요한 동인이다. 이러한 감정적 유대를 기반으로 ‘4·16가족협의회’는 억압되고 지연된 애도의 공동체이자 진실과 정의(正義)의 공동체라는 성격을 갖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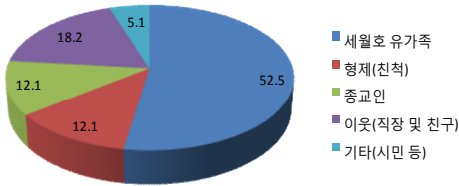
② 그 이후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민적 공분과 진실규명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비등하던 2014년 5월 22일 세월호 유가족 단체와 전국의 80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연대하여 세월호 참사 대응 범시민사회단체 연대기구로서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위원회’를 발족했다. 이 조직은 실종자 수색구조 촉구 및 진도 팽목항에서 방문자 안내,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와 이를 위한 특별법 제정, 국민 1000만 명 서명운동, 존엄과 안전에 대한 인권선언 등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출범과 함께 대규모 촛불집회를 개최하는 등 세월호 운동의 중심체로 등장했다.

③ 참사 1주년이 지나면서도 박근혜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세월호특별위원회의 활동을 방해하는 상황이 이어지자 2015년 6월 28일 세월호 유가족과 국민대책위원회, 자발적 지역모임과 개인들이 합류하여 ‘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약칭 ‘4·16 연대’)를 출범시켰다. 이 단체는 4·16 참사에 대응한 ‘통합적 상설단체’로 구성되었다. 유가족과 통합적으로 운영하여 빠른 소통과 정보 공유가 이루어지게 하고, 상설적인 논의 및 집행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4·16 참사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안전한 인양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다. 4·16 연대는 다중심성, 자발성, 확장성, 수평적 전국·해외 네트워크를 지향하며 -단체 간 연대기구가 아니라- 시민회원 가입을 기반으로 한 ‘단일한 사회단체’의 성격을 지닌다. 다시 말해 4·16 연대는 지역 및 풀뿌리 간 수평적 교류·연결(네트워크)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국민연대와 구별된다.³⁸⁾ 사건 초기부터 유가족을 중심으로 한 수평적인 네트워크 방식(지향)의 적극적인 결합은 5·18 진실규명운동과 차이를 가르는 분명한 지점이다. 전례가 없던 양자(유족회와 시민연대)의 전면적 결합은 4·16운동이 촉발한 사회운동의 새로운 국면을 보여주는 지점이기도 하다.

하지만 유족회를 결속시키는 감정동학이라는 측면에서 두 사례는 크게 다르다 볼 수 없는데, 인류학자 이현정은 세월호 유가족이 보여준 강력한 행동주의의 원천으로 두 가지 감정 경험에 주목한다. 하나는 국가조직 및 정치적

38) 위의 책, 263-264쪽; 4·16연대 홈페이지 <http://416act.net> 참고.

〈자료2〉 지지가 되어주는 관계



출처: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2016

지도자들에 대한 분노와 불신이며, 다른 하나는 자식의 죽음을 막지 못다는 부모로서의 미안함과 죄책감이다.³⁹⁾ 앞서 말했듯 이러한 감정들은 4·16 가족협의회를 하나의 감정공동체로 응집시키는 정서적 토대가 되었다. 나아가 세월호 유가족들의 사별 및 자녀상실 경험을 다룬 현상학적 사례연구는 가족협의회가 애도와 분노의 공동체이자 치유의 공동체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많은 유가족들은 불화와 이혼, 소외와 낙인 등 다양한 형태로 겪은 가족관계, 친족관계, 이웃관계, 사회관계의 단절과 변화에도 불구하고, “가장 지지가 되어주는 관계”로 세월호 유가족(52.5%) 및 4·16 가족협의회 관련 활동을 꼽고 있다.⁴⁰⁾ 유족들은 진실을 알고 싶어하는 여러 기관들이나 단체들의 간담회 초청을 받으면서 위로와 큰 힘을 받았고, 한 사람이라도 변화되는 사람을 보면 보람을 느꼈다. 그리고 유족들은 진상규명활동 그 자체를 자녀와의 사별에 대한 애도활동으로 여기면서, 죽은 자녀가 자기 자신의 일부분으로 자아 안에 살아있게 하여 현존으로서의 치유적 효과를 얻으려 하고 있다.⁴¹⁾ 말

39) 이현정, 「수동적 시민에서 저항적 주체로: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어떻게 국가권력에 맞서왔는가?」, 서재정·김미경 엮음, 『침몰한 세월호, 난파하는 대한민국』, 한울아카데미, 2017, 276쪽.

40)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피해자 군별 세월호 참사 피해자 지원 실태조사 연구용역(과제명: 참사 피해자 중 단원고 학생 희생자 가족 대상 실태조사) 최종보고서」(2016. 8), 57쪽.

41) “간담회에 가는 것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치유가 된 것 같아요. 간담회에 가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울다가 웃다가 할 수 있으니까.” “제일 위로가 되는 거는 간담회나 북 콘서트나 이런 거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가 내 얘기 듣고 생각이 완전히 바뀌는 사람을 만날 때 힘이 나더라고… 내 마음속에 있는 분노랑 미움 이런 것도 알아 차려지고 어느 정도 해소도 되고.” 김은미, 「세월호 유가족의 자녀상실 경험

하자면 진실규명 활동은 곧 자녀의 죽음에 대한 죄책감을 덜고자 하는 노력이기도 했다.

2. 원통과 깨달음의 감정동학: 유족과 유족을 잇는 세월호 연대

요컨대 고통스러운 여정 속에서 유족들은 슬픔과 절망 속에만 빠져있던 것이 아니었다. 유족들은 국가 관료 및 관련자들의 꼬리에 꼬리를 문 ‘거짓말’과 마주하면서 국가가 자신들과 같은 소위 ‘힘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적나라하게 깨닫게 되었다. 이러한 깨달음이 바로 유가족들의 정치적인 자각의 원동력이었다고 할 수 있다. 유가족들은 그간 사회운동을 자신과는 무관한 어떤 특별한 사람들의 일이라 여기고 무관심했던 자신들의 삶을 후회하고 반성했다. 참사 이후 정부의 실망스러운 대응들을 지켜보면서 가족들은 사회운동의 필요성에 대한 자각이 싹트기 시작했으며, 평범하게 순응적으로 살아왔던 이전의 삶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하였다. 오로지 정치적 행동만이 국가가 국민들을 더 이상 폭력과 경멸로 대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다. ‘누구도 대신해주지 않기에 스스로 일어나야한다는 자각’ 속에서 유가족들의 정치적인 의식 또한 함께 성장해갔다.⁴²⁾

이러한 정치적 깨달음 혹은 역사적 반성은 5·18 유가족의 생애사에서도 유사하게 각인된 부분이다. 자식의 죽음과 구속을 사회적인 차원에서 자리매김하게 되는 과정은 개인의 상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통해 이루어진다. 여기에는 자신이 놓여있는 상황을 사회역사적인 틀로 전환시킬 수 있는 다양한 작업들이 요구된다. 그러한 작업은 자신의 처한 상황을 객관화하거나 과거의 삶과 현재를 연결시킬 수 있는 새로운 인식틀과 만나게 되는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다. 오월 유가족들은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는 다른 사람들의 사연을 접하면서 자신에게만 닥쳐온 괴로움이라고 생각했던 사건이 실은 그러한 괴로움을 만들어낸 시대적 상황과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유족들은 자식의 삶과 그로 인한 본인의 고통이 외로운 싸움만은 아니라고 느낀다. 자신의 경험을 사회적 차원으로 맥락화시키는 것은 마음을 담대

연구, 백석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92쪽에서 재인용.

42) 이현정, 앞의 책, 281, 291쪽

하게 하고 싸울 수 있는 용기를 북돋우면서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동지애’를 느끼는 차원으로 연결된다. 이러한 동지애는 특정한 역사적 상황에서 비롯된 고통을 함께 공감한다는 의미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더 나아가 연대를 형성할 수 있는 바탕을 제공하는 것이다.⁴³⁾

그리고 5·18 유가족들의 사례에서 고통의 공감에 뿌리내린 깊은 연대감은 시공간을 훌쩍 뛰어넘어 세월호 유가족들의 사례에서도 재현될 뿐 아니라 서로를 참조하며 보강한다. 아래의 두 사진은 세월호 연대가 확장되는 국면에서 상호응시와 대면을 통해 촉발된 역사적 반성의 시공간을 보여준다. 왼쪽의 사진은 ‘오월어머니집’과 ‘5·18 민주유공자 유족회’ 등 5·18 단체 회원들이 지난 2015년 4월 11일 진도 팽목항을 찾아 희생자를 추모하고 조속한 세월호 선체 인양을 정부에 촉구하며 내걸었던 펼침막이다.⁴⁴⁾ 이 펼침막에는 “5·18 엄마가 4·16 엄마에게-당신 원통함을 내가 아오. 힘내소, 쓰러지지 마시오”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오른쪽 사진은 5·18 민주화운동 37주년인 2017년 5월 18일 광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세월호 유가족 40여명이 방문해 오월어머니를 위로하고 있는 장면의 하나이다.⁴⁵⁾

(자료2) 5·18 유가족과 4·16 유가족의 상호응시



43) “목요집회에서 설교나 감옥 간 사람들이 나와서 발표하고 호소하고 하는 걸 [듣고] (….) 어려움을 당하는 부모들이 발표하니까 나도 모르게 담대해지고 또 상승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동지애를 느끼고” 김희숙, 앞의 논문, 38-39쪽에서 재인용.

44) 『한겨레신문』, 2015. 4.21.

45) 『뉴시스1』, 2017. 5.18; 『오마이뉴스』, 2017. 3.26.

이 사진이 있음직한 이야기를 찾아다니는 언론사 기자에 의해 우연히 포착된 것만이 아니라는 점은, 세월호 진실규명을 지원하는 가장 활발한 지원 활동을 했던 지역이 광주였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고, 세월호 유가족과의 간담회에서도 빈번히 등장했던 5·18 관련한 죄책감과 깨달음의 서사에서도 확인된다.

내가 5·18 진실을 알고 행동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희생된 것 같고 더 미안하고 죄책감이 더 들거든요.⁴⁶⁾

이를테면 4·16 가족협의회 유경근 집행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2015년 5월 17일 광주에 갔을 때의 이야기다. 광주분들이 세월호 유가족들을 많이 도와줬다. 광주에는 시민상주모임도 하고 또한 세월호 재판을 광주에서 많이 했다. 그때마다 세월호 가족들을 많이 도와줘서 그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날인 5·18 전야제에 가게 되었다. 저녁때 도청 앞에서 전야제를 참석해서 5·18 어머님들과 유가족 엄마들이 만났는데 5월 광주 어머니들이 세월호 유가족 엄마들 한 분씩 손을 잡고 꼭 안으면서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그래 다 안다, 다 안다, 내가 다 안다...'였다. 그때 무덤덤하게 갔던 세월호 엄마들이 다 오열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처음 들었던 말이었다. 그동안에 '힘내세요' 등 수없이 응원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우리 엄마들이 듣고 싶던 말이 이 말이었구나 싶었다. 수십 년 전 자식과 남편을 잃은 백발의 5월 어머님들이 세월호 엄마들을 안아주셨다. 그때부터 세월호 엄마들이 5월 엄마들을 친정 어머님처럼 생각하고 지금도 자주 찾아뵙는다. 그 출발이 된 날이 5월 광주였다.⁴⁷⁾

이들은 원인을 모르고 자식을 잃어야만 했던 원통함에 대한 깊은 공감과 연대, 그리고 진실규명이라는 공통의 시대적 책임에 대한 깨달음을 매개로 역사적 반성의 루트 패러다임에서 -미나베가 말한 '의제 친족집단'과 같이- 새롭게 대면하고 있는 것이다.⁴⁸⁾

46) 4·16기억저장소 구술증언팀, 『4·16 구술증언록-유가족편 제2권』, 4·16기억저장소 홈페이지, <http://416memory.org/>.

47) 『오마이뉴스』, 2017. 3.26.

48) 단원고 고(故) 오영석 군의 어머니 권미화와 오월 어머니집 회원 이귀임의 대화의 맥락에서 이러한 결속의 단면을 엿볼 수 있다. “요새 세월호 참사 때 영상이나 사진이 자

3. 후회와 뉘우침의 감정동학: 세대와 세대를 잇는 세월호 연대

또 하나 주목해야할 지점은 세대와 세대를 하나의 공감장으로 엮어내고 있는 후회와 뉘우침의 감정동학이다. ‘가만히 있으라’는 가르침을 따랐던 아이들을 잃고 나서, 희생자 부모들이 감내해야했던 뼈아픈 후회는 그동안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바쁜 일상 속에서 아이의 내면적인 생각과 감정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지 못했다는 반성과 연관된다. 또한 유가족들은 많은 사람들(특히 ‘힘 있는 사람들’)이 타인의 생명보다 자신의 돈을 더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팽목항에서부터 청문회에 이르기까지, 물질만능주의적 가치가 어떻게 무고한 학생들을 쉽사리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는지를 직접 목격했던 까닭이다. 즉 참사는 가족들의 세계관, 특히 돈에 대한 관점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생명보다 우선시되는 금전적 가치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통한 일련의 가치역전과 깨달음을 바탕으로 유가족들은 이제 새로운 공간과 새로운 관계로 이루어진 공동체를 상상하고 있다.⁴⁹⁾

세월호 부모세대에게 드러나는 후회와 죄책감, 뉘우침의 서사는 -나를 비롯한- 세월호 참사를 목격했던 많은 시민들이 뼈저리게 공유하는 것이겠지만, 이는 세월호 생존학생 및 희생자 형제자매들에게 세월호 세대가 깊어져야 할 책임감의 형태로 더욱 단호하게 드러난다.⁵⁰⁾

주 나오잖아요. 내가 담요 덮고 울고 있는 사진, 그걸 방송에서 보셨나 봐요. 그래서 걱정돼 전화하셨더라고요. 어머니께서 '끝까지 싸우려면 건강 잘 챙기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머니도 맨날 우리가 울고 있는 모습만 보이니 마음이 아리신 거죠. (그 전화 받고) 나도 마음이 아렸어요.” 『오마이뉴스』, 2016.12. 9.

49) 이현정, 앞의 책, 297-306쪽 참고

50) “416 관련해서 제가 새롭게 만난 활동가 청년들이 그러세요. ‘청년하다’라고 하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진실서포터즈’라고 만들었어요. 그분들이 저한테 형제자매 중에서 진실서포터즈에 함께 해줄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고 해서 만났는데 이곳에선 정말 열띠게 토론해요. 세월호라는 주제로 공부하고, 어떻게 할까, 어떤 방식으로 나갈까 토론해요. 이룸도 좋아요. 진실서포터즈. 그곳에 갔을 때 힘을 얻었어요. 아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세월호 관련한 일에 필요하면 무조건 나와서 함께하는 거예요. 사고 이전에는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많는지 몰랐어요. 그때 이렇게 힘든 사람이 있는 줄도 몰랐고, 이렇게 돕는 사람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아예 몰랐어요. 전혀!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러니까 사고 이전에 저는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416세월호참사작가기록단, 『다시 봄이 올거예요: 세월호 생존학생과 형제자매 이야기』, 창비, 2016, 328쪽.

애들이 죽은 건, 침묵하는 사람들 때문이기도 하잖아요. 이 시대의 어른들. 제가 그런 사람이 된다면, 그래서 또 이런 참사가 일어난다면 죽는 것보다 더 비극적인 것 같아요. 그렇게 안 살기로 다짐했어요. 성호랑도 약속했어요. 불의를 보면 침묵하지 않고 진실을 알리려고 노력하고 그걸 넘어서 저보다 어린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며 의견을 존중할거예요.⁵¹⁾

정치권의 임기는 몇년이지만 세월호 형제자매라는 이름의 임기는 죽을 때까지니까. 우리가 잊지 않고 있으니까. 부모님 세대에서 밝혀내지 못하면 우리 세대에서도 꼭 밝혀낼 것이다. 그걸 권력에게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엄마아빠들한테도 말하고 싶었어요. 엄마아빠들이 이렇게 하다가 지쳐서도 우리가 자라난다. 권력은 지금 착각하고 있어요. 착각하면 안돼요. 일어난 지나서 끝날 일이 아니거든요. 나라 돌아가는 꼴을 보니, 광주민주화운동만 봐도 수십 년을 싸워서 진실을 밝혔어도 아직도 일베는 조롱하잖아요. 폭도라고 세월호 가족들도 나중에 빨갱이라고 안 그러겠어요? 나중에 그럴지도 모르죠. 하지만 신경 안 써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노력하기 때문이겠죠. 진실을 위해 싸우기 때문에... (중략) 지칠 만하면 청문회에서 쏟아내는 거짓말을 듣고 확 속이 뒤집히고... 아주 이 나라가, 이 정부가 형제자매들의 가슴에 불을 훑~ 질러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게 돼요. 우리의 숙명 같은 거죠. 하하...⁵²⁾

부끄러움보다 더욱 단호한 책임감을 동반하는 뉘우침의 감정동학은 제프리 올릭(J. Olick)이 ‘후회의 정치(politics of regret)’라 말한 것과 유사하다. 이는 ‘과거의 잘못을 대면하는 새로운 방식’을 의미한다. 올릭은 후회의 정치에서 집단적 기억을 중심으로 사회의 규범적 성숙과 정을 다루었다. 후회의 정치는 역사의식의 탄생과 함께 등장한 현상이지만, 이는 대안적 가능성의 지각을 통해 이루어진다. 즉 “다르게 행동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인식할 때 개인은

〈자료3〉 세대와 세대를 잇는 세월호 연대



51) 위의 책, 219쪽.

52) 위의 책, 333-334쪽.

비로소 자신이 저지른 행동과 하지 않은 행동, 자신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행동에 말 그대로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이다.⁵³⁾

4. 추모의 지역네트워크와 확대되는 공감장: 지역과 지역을 잇는 세월호 연대

마지막으로 주목할 점은, 유족의 상(喪)의 과정에 동참한 광범한 시민연대의 물결이다. 사실 세월호 참사 및 유가족들의 요구에 대한 사회적 공감과 반향이 워낙 컸기 때문에 시민사회 자체가 유가족의 활동을 통해 새로운 동력을 얻기도 했다. 예컨대 국민대책회의는 기존의 800여개 단체가 회원조직으로 가입하면서 다시 한 번 시민사회가 결집하는 구심점으로 작용했다. 4·16 가족협의회의 경우, 전국의 지역별로 혹은 해외까지도 120여 개의 지지단체 네트워크가 구성되었다. 말하자면 세월호 참사와 유가족은 시민사회와의 연대를 통해 동력을 제공받기도 하고 반대로 시민사회의 조직과 활동을 자극하기도 하는 등 밀접한 상호작용을 통해 활동의 지역, 인적 네트워크 및 이슈영역의 지평을 넓혀갈 수 있었다.⁵⁴⁾ 이는 유족과 사회 사이에서 작동하는 루트 패러다임이 확장된 단면을 보여준다.

대표적인 사례가 ‘세월호 3년상을 치루는 광주시민상주모임’(이하 ‘시민상주모임’)이다. 시민상주모임은 세월호 참사를 목격하고 가슴이 먹먹해진 사람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자발적으로 꾸린 대표적인 공동체 모임이다. 이들은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된 후, 전국에서 세월호의 진실을 찾기 위한 움직임이 소강상태로 접어들었을 때인 2014년 11월15일 ‘세월호 진실과 안전한 사회를 향한 빛고을 1000일 순례’를 시작했다. 시민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을 찾아 순례를 하며 광주 전지역을 누볐고, 진도 팽목항, 경기도 안산, 서울 광화문 등의 순례길에 나섰다. 그리고 2017년 8월 11일 1,000일째를 맞았다. 천일순례의 목표는 두 가지였다. 하나는 세월호 진실규명 촉구였

53) 올릭에 따르면, 근대사회가 이전 사회보다 다른 체계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대안적 가능성의 지각 때문이었다. 이는 근대적 개인뿐 아니라 집단과 그 대표자에게도 해당된다. 제프리 올릭, 『기억의 지도: 집단기억은 인류의 역사와 사회, 그리고 정치를 어떻게 뒤바꿔놓았나?』, 강경이 옮김, 옥당, 2011, 216-217쪽.

54) 김기석, 앞의 책, 276쪽.

다. 또 다른 목표는 ‘100개의 안전한 마을 만들기’이다. 이렇게 이어진 추모의 물결은 교육공동체·환경운동 등 새로운 형태의 마을운동으로 조금씩 진화하고 있다.⁵⁵⁾

세월호 희생자들을 기리는 추모의 연대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의 목적지였던 제주도에서도 기억공간의 형태로 확장되고 있다. 세월호 1주기인 2015년 4월 16일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에 터를 잡은 ‘기억공간 리본(re:born)’은 자원활동가들과 더불어 세월호와 관련된 기획 전시와 토크콘서트, 영화상영과 토론회, 서명 운동과 캠페인 등을 벌여왔다. 주목할 점은 이러한 기억의 장소화를 이끈 주체가 처음에는 설립자 개인에서 시작했지만 문화와 예술적 정서, 전문성을 공유하는 제주 이주자들, 공동체 조직, 피해자들 간의 유기적인 네트워크로 확대되었다는 점이다. ‘기억공간 리본(re:born)’에는 관광객이나 단원고 희생자 유가족뿐만 아니라 제주 4·3 항쟁, 간첩단조작사건 피해자들이 찾아왔다. 그럼으로써 이 공간은 세월호를 넘어 국가에게 희생당한 기억을 공유하는 장소로 재해석되고 있다.⁵⁶⁾ 그리고 ‘제주416기억위원회’는 내년을 목표로 도민모금운동 등을 통해 제주에 416기억조형물과 기억공간을 세우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⁵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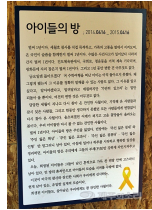
무엇보다 4·16 운동의 전개과정에서 1천회가 넘는 풀뿌리 시민참여에 기초해 만들어진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 인권선언’과 특히 지역 차원에서 시민들의 토론 및 문화제가 결합된 참여형 촛불시위는 시위문화의 질적 변화를 보여주는 하나의 지점이다. 시위문화는 앞서 말한 정기적 의례의 한 형태이다. 이 속에서 발현된 집합감정(상호감정)은 저항의 즐거움과 결부되어 있다.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즐거움, 집합적 동작이나 노래에 몰입하는 것과 같은 집합적 활동의 기쁨에서 즐거움이 나온다. 이것은 대부분 다른 사회운동과 체제들 역시 추구해온 문화적 프로젝트다.⁵⁸⁾ 일찍이 뒤르케임

55) 마을 주부들과 세월호 노란 리본을 만드는 ‘쭈마리봉스’라는 소모임이나 마을 인권문화제 및 나눔장터 등이 그 사례이다. 『한겨레신문』, 2017. 8.10.

56) 신혜란은 이와 같은 제주도 기억공간을 세월호 기억이 대안적 영토로 옮겨 재영토화되는 기억의 공간정치의 사례로 분석한 바 있다. 세월호의 목적이이면서 대안적 삶을 상징하는 제주에서 제주문화이주자 네트워크, 희생자 네트워크, 관광객에 의지한 느슨한 네트워크형 기억의 재영토화(re-territorialization of memory)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신혜란, 『기억의 영토화』, 『공간과사회』57, 한국공간환경학회, 2016, 143-145쪽

57) 『뉴시스1』, 2017. 4.16.

〈자료4〉 지역과 지역을 잇는 세월호 연대



왼쪽부터 춤추는 광주시민상주, 안산, 진도 팽목항, 목포시향, 제주 기억공간 리본(rec:born)

또한 『종교생활의 기본형태』(1912)에서 적극적 승배를 논하며 의례가 사회 형성에서 지닌 중요성을 말한 바 있다. 의례는 개인과 집단을 도덕적으로 회복하는데 기여한다. 사람들이 의례를 거행하는 것은 물리적 효과 때문이 아니라 집단으로 하여금 과거에 충실하게 하고 그것의 규범적인 특징을 보존하기 위해서다. 의례는 결국 집합의식의 가장 본질적인 요소들을 소생시키며, 이러한 의례를 통하여 집단은 주기적으로 자신의 통일성에 대한 감정을 새롭게 한다.⁵⁹⁾

이렇게 볼 때 최근 입지 문제로 격렬한 진통을 겪고 있던 하지만, 안산추모공원의 건립은 안전·생명·인권 교육 및 기억의 공간을 구축함으로써 재난의 재발 방지 뿐 아니라 당사자들이 속한 피해지역의 공동체 회복과 인권레짐의 새로운 구심점이 될 수 있음을 ‘오월어머니집’의 경로는 앞서 보여주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는 구체적인 장소성을 획득할 때에만 탄력을 받는다는 점이다. 요컨대 마을/지역이라는 구체적인 장소에 기반한 일상적인 추모공간

58) 굿윈·제스퍼·폴레타(편), 앞의 책, 40-44쪽.

59) 이를 통해 개인들은 사회적 존재로서의 자신들의 본질을 강화시킨다. 에밀 뒤르케임, 『종교생활의 원초적 형태』, 노치준·민혜숙 옮김, 민영사, 1992, 513-520쪽.

의 확대는 ‘공감의 반대벡터로서 무력감·비공감·반애도’⁶⁰⁾에 맞서 ‘인권의 지역화’를 촉진할 유력한 경로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⁶¹⁾

IV. 토론 및 전망: 대안적 수행집단과 친밀한 공공권의 가능성

이제까지 5·18과 4·16이라는 서로 다른 역사적 사건을 교통하고 있는 공감의 자장과 감정동학을 세월호 연대의 루트 패러다임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 글은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들이 국가폭력에 얽힌 생애사적 고통을 뚫고 역사적 반성의 시간을 만들고 있는 국면들을 거칠게나마 드러내 보여준다. 이 시간은 단선적이고 절대적이며 양적이라기보다 유동적이고 관계적이며 질적인 시간일 것이다. 이 시간 속에서 ‘세월호’는 과거의 국가폭력과 현재의 국가폭력의 극복을 동시대적 과제로 각인한 범국민 양심회복운동이자 참여형 시민연대의 대명사로, 흩어져있던 인권의제들을 대면케 하는 새로운 루트 패러다임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그리고 지난 2017년 8월 16일, 취임 100일을 맞은 문대통령이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처음으로 참사의 정부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를 했다. 침몰의 원인과 진실규명의 과정은 여전히 부진하지만 살아남은 생존자와 유가족, 시민들은 세월호를 통해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우리 사회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점차 알아가고 있다.

이러한 삶의 연장선상에서 함께 고민하고 싶은 마지막 지점은, 이러한 반성을 가능케 한 조건이 과연 무엇이였는가의 문제다. 먼저 세월호 희생자와 유가족을 중심으로 한 시민연대가 지속가능한 형태로 확장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다른 재난공동체와 달리- 공통된 슬픔과 분노를 공유한 감정적 유대가 진실과 정의, 그리고 안전사회 건설이라는 대안적인 가치의식과 결합되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하지만 한국전쟁 피학살 유족회의 진실규명운동에 대한 선행연구를 참고한다면, 대안적인 가치의식의 결합이 세월호 연대에

60) 천정환, 『애도의 한계와 적대에 관하여』, 『팽목항에서 불어오는 바람』, 인문학협동조합 기획, 현실문화, 2016, 197쪽.

61) ‘인권의 지역화’에 대해서는 김종섭, 『인권의 지역화: 일상생활의 인권 증진을 위하여』, 집문당, 2016을 참고하라.

만 고유한 감정양식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고려해야할 두 번째 조건은 진실의 왜곡과 망각의 명령에 맞서 대안적인 서사를 시의적절하게 창출했던 대안적 수행집단(alternative carrier groups)의 역할이다. 참사 이후 지난 3년 6개월 동안 80종 이상의 저서가 발간되었고, 여러 편의 다큐와 영화가 제작되는 등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진실의 재현 활동이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무엇보다 구체적인 타자의 사회적 고통을 청중에게 공감 가능한 ‘서사’로 전달한 작가/예술가와 활동가들, 특히 ‘416세월호작가기록단’의 작업은 지식생산의 주체가 변화한 것만큼이나 지식생산의 방식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깨닫게 한다.

이렇게 볼 때 설명적 적합성은 물론 서사적 적합성을 담보하는 재현 작업은 친밀한 연대에 기반한 공공권의 가능성을 열어놓는다. 이 글의 서두에서 말했듯, 친밀권은 구체적인 타자의 삶/생명에 대한 배려와 관심에 의해 형성되고 유지된다는 특징을 보인다. 여기서 ‘구체적’이라는 것은 이중의 의미가 있다. 첫째로 친밀권의 타자는 안면 없는 일반적인 타자, 추상적인 타자가 아니다. 그러한 인칭성을 결여한 공간을 친밀권이라고 부를 수는 없다. 둘째로 친밀권의 타자는 신체를 갖춘 타자이다. 타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배려가 사람들을 이어주는 매체이다. 국가가 매개하는 비인칭적이고 추상적이며 강제적인 연대와 달리, 친밀한 공공권이 매개하는 연대는 구체적인 ‘얼굴이 보이는’ 연대를 통해 거기에 참가하는 사람들에게 더욱 확실한 연대 감각을 부여한다. 특히 친밀한 유대의 터전이 되는 ‘지역’은 연대의 모태이자 연대성을 경험하는 핵심 공간이라는 점에서⁶²⁾ 세월호 연대가 확장한 풀뿌리 지역 연대 -지역 내 연대·지역 간 연대- 와 커뮤니케이션 유형은 대안적인 정치형식의 가능성을 촉진한다. 결론적으로 대안적 수행집단의 재현 작업을 매개로 4·16 참사에서 촛불혁명에 이르는 기간 우리 사회가 보여준 규범적인 성숙 과정은 질적으로 새로운 형식과 내용을 갖는 사회연대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 글은 사회운동의 감정적 토대와 문화적 동학이라는 관점에서 그 가능성에 구체성을 더해보고자 하였다.

62) 강수택, 「지역연대의 의미와 유형」, 『로컬리티 인문학』 14,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원 소, 2015, 55쪽.

참 고 문 헌

1. 연구논저

- 416세월호참사작가기록단, 『금요일엔 돌아오렴: 240일간의 세월호 유가족 육성기록』, 창비, 2015.
- _____, 『다시 봄이 올거예요: 세월호 생존학생과 형제자매 이야기』, 창비, 2016.
-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피해자 군별 세월호 참사 피해자 지원 실태조사 연구용역(과제명: 참사 피해자 중 단원고 학생 희생자 가족 대상 실태조사) 최종보고서』, 2016. 8.
- 강수택, 『지역연대의 의미와 유형』, 『로컬리티 인문학』 14,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5.
- 구원·제스퍼·폴레타(편), 『열정적 정치: 감정과 사회운동』, 박형신 옮김, 한울아카데미, 2012.
- 김기석, 『유가족은 왜 활동가가 되었나: 한국 민주주의를 비추는 희망의 등불』, 『세월호가 남긴 절망과 희망』, 가만히 있지 않는 강원대 교수 네트워크, 한울아카데미, 2016.
- 김동춘·김명희 외, 『트라우마로 읽는 대한민국: 한국전쟁에서 쌍용차까지』, 역사비평사, 2014.
- 김명희, 『한국 이행기 정의의 감정동학에 대한 사례연구: 웹툰 <26년>을 통해 본 5·18 부인(denial)의 감정생태계』, 『기억과 전망』 34,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16.
- _____, 『동아시아 분단체제의 재구성 장치로서 친밀적 공공권(親密的 公共圈)의 가능성: 코리안 디아스포라 생활세계 비교연구를 위한 하나의 시론』, 『민주주의와 인권』 16(2),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2016.
- 김명희·김광배 편, 『세월호 이후의 사회과학』, 그린비, 2016.
- 김은미, 『세월호 유가족의 자녀상실 경험 연구』, 백석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 김중섭, 『인권의 지역화: 일상생활의 인권 증진을 위하여』, 집문당, 2016.
- 김화숙, 『여성의 사회적 저항 경험에 관한 여성주의적 접근: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어머니 활동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 노다 마사야키, 『떠나보내는 길 위에서: 대형 참사 유족의 슬픔에 대한 기록』, 서혜영 옮김, 팬타그램, 2015.
- 노영숙, 『오월어머니집 형성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 마사 너스바움, 『혐오와 수치심』, 조계원 옮김, 민음사, 2015.
- 미나베 유코, 『열사의 탄생: 한국민중운동에서의 한의 역학』, 김경남 옮김, 민속원, 2015.
- 레이먼드 윌리엄스, 『문학과 문화이론』, 박만준 옮김, 경문사, 2003.
- 박구병, 「‘추악한 전쟁’의 상흔: 실종자 문제와 아르헨티나 <오월광장 어머니회>의 투쟁」, 『라틴아메리카연구』 19(2호), 한국라틴아메리카학회, 2006.
- 박형신, 「먹거리 불안·파동의 발생 메커니즘과 감정동학」, 『정신문화연구』 3(2), 한국학 중앙연구원 2010.
- 박형신·정수남, 『감정은 사회를 어떻게 움직이는가』, 한길사, 2015.
- 반 겐넵, 『통과의례: 태어나면서부터 죽은 후까지』, 진경수 옮김, 을유문화사, 1995.
- 빅터 터너, 『제의에서 연극으로: 놀이의 인간적 진지성』, 김의두·이기우 옮김, 민속원, 2014.
- 사이토 준이치, 『민주적 공공성: 하버마스와 아렌트를 넘어서』, 윤대석·류수연·윤미란 옮김, 이음, 2009.
- 신명진, 「세월호 유가족의 사별경험」,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 신혜란, 「기억의 영토화」, 『공간과 사회』 57, 한국공간환경학회, 2016.
- 에밀 뒤르케임, 『종교생활의 원초적 형태』, 노치준·민혜숙 옮김, 민영사, 1992.
_____, 『사회분업론』, 민문홍 옮김, 아카넷, 2012.
- 이동진, 「국민과 비국민의 경계: 피학살유족회 사건을 중심으로」, 『라틴아메리카연구』 19(2), 한국사회사학회, 2014.
- 이현정, 「수동적 시민에서 저항적 주체로: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어떻게 국가권력에 맞서왔는가?」, 서재정·김미경 엮음, 『침몰한 세월호, 난파하는 대한민국』, 한올아카데미, 2017.
- 전남대학교 감성인문학연구원, 『공감장이란 무엇인가: 감성인문학 서론』, 길, 2017.
- 제프리 울릭, 『기억의 지도: 집단기억은 인류의 역사와 사회, 그리고 정치를 어떻게 뒤바꿔놓았나?』, 강경이 옮김, 옥당, 2011.
- 천정환, 「애도의 한계와 적대에 관하여」, 『팽목향에서 불어오는 바람』, 인문학협동조합 기획, 현실문화, 2016.
- 피에르 클라스트, 『국가에 대항하는 사회: 정치인류학 논고』, 홍성흠 옮김, 이학사,

2005.

- Aretxaga, Begonia, *Shattering Silence: Women, Nationalism, and Political Subjectivity in Northern Ireland*,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7.
- Casey, Edward. S., "Public Memory in Place and Time" in K. P. Pillips, Browe, Stephen, & Biesecker, Barbara, eds., *Rhetoric, Culture, and Social Critique: Framing Public Memory*, Alabama: University of Alabama Press, 2004.
- Kim, Myung-Hee, "The Possibility of Intimate Public Sphere: Political Familism of Divided Koreans", *S/N Korea Humanities* 2(1), 2016.
- Wright, Brendan, "Raising the Korean War Dead: Bereaved Family Associations and the Politics of 1960-1961 South Korea", *The Asia-Pacific Journal* 41(2), 2015.

2. 언론자료 및 인터넷 사이트

- 『국민일보』, 2016. 4.12.
- 『뉴스1』, 2017. 4.16.
- 『뉴스1』, 2017. 5.18.
- 『연합뉴스』, 2014.4.17
- 『오마이뉴스』, 2016.12. 9.
- 『오마이뉴스』, 2017. 3.26.
- 『한겨레신문』, 2015. 4.21.
- 『한겨레신문』, 2017. 8.10.
- 4·16 연대 홈페이지 <http://416act.net>.
- 4·16 기억저장소 홈페이지 <http://416memory.org>.
- 통계청 홈페이지 <http://kostat.go.kr/portal/korea/index.action>.

Abstract

Families Against the State: The Emotional Dynamics of Sewol-Ferry Solidarity and Root Paradigm

Kim, Myung-Hee*

This study examined the emotional dynamics of Sewol-Ferry solidarity, which has echoed the historic events of 5.18 since the accident in 2014, based on the concept of bereaved family mourning and root paradigm. Specifically, this paper focused on three types of emotional dynamics revealed through Sewol-Ferry solidarity: the first is the emotional dynamics of resentfulness and realization expressed as the bereaved families of the May 18th Movement, shared their experiences with the bereaved families of the April 16th Sewol-Ferry accident; the second is the emotional dynamics of regret and repentance created by linking generations contemporarily and referring to each other; and the third is the venue of sympathy, expanded by linking regions through a regional network of remembrance. Each of these emotional dynamics reveals a new phase of solidarity in which bereaved families and citizens are creating a time for historical reflection, overcoming the hardships of life intertwined with state violence. This paper intends to facilitate such solidarity from the perspective of emotional foundations and cultural dynamics of social movements.

* Research Professor, The Institute of Humanities for Unification (IHU), Konkuk University.

Key words : Sewol-Ferry Solidarity, Mourning of the Bereaved Families, Root Paradigm, Emotional Dynamics,
Historical Reflection.

교신: 김명희 05029 서울 광진구 능동로 120
건국대학교 문과대학(19동) 301호
(E-mail: kcckmh@daum.net)

논문투고일: 2017. 09. 15

심사완료일: 2017. 10. 03

게재확정일: 2017. 10. 04